

張保臯의 淸海鎮 進出에 관한 考察

姜 祥 澤

A Study on the Chang Pogo's Advancing into Cheonghae-Jin

Kang, Sang Taek

目 次

- I. 머리말
- II. 張保臯의 淸海鎮 進出前의 新羅
- III. 東大寺 正倉院의 寶物과 新羅의 産業構造
- IV. 新羅의 交易構造와 張保臯
- V. 9 世紀 張保臯의 淸海鎮 進出
- VI. 맺음말

Abstract

Supposing that 'Silla was a maritime state' can't be explained except Chang Pogo's maritime activities. When we understand the historical process his maritime activities in the 8th and 9th centuries gained supremacy over the power of sea and trade, Silla can be regarded as a maritime kingdom. The bases of trading activities Chang Pogo gained in Tang reflect the level of Silla shown after the establishment of Cheonghae Garrison(Cheonghae-jin) at Wando in Silla. This article aimed to investigate what the reality of Chang Pogo not properly analysed till now was, and how much his activities in the 9th century had influence on East-Asian history. Professor Edwin O. Reischauer noted that Chang Pogo had been a trading king of a maritime kingdom, given the advance of Chang Pogo in Silla and his role after the establishment of Cheonghae Garrison.

This article, therefore, centered on Chang Pogo's activities in Tang and the advancing process at Cheonghae Garrison in Silla. For this, we have investigated in terms of trade how the economic bases and industrial developments of bone-rank nobility had been made in the later Silla. And also, this article put emphasis on rearranging the diverse points of view of the existing researchers. This has been identified by the relations between military intendant in Tang and Chang Pogo, and far-reaching arrangement of the trading relations between Silla and Japan before the establishment of Cheonghae Garrison. This study has been rearranged in relation to the problems encountered by Silla court and the actual conditions of bone-rank nobility.

The essential points of this study were what the backgrounds of the maritime power of Chang Pogo had been, how the society of residents from Silla in Tang and society of residents from Silla in Japan had been linked, and how the activities after the advance in Cheonghae Garrison had been arranged.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day of Daesa(大使) Chang Pogo hidden behind the brief documents in *Samguk sagi*(*History of the Three Kingdoms*) and *Samguk yusa*(*Memorabilia of the Three Kingdoms*) that he had rebelled because of the problem of making his daughter a queen, and been assassinated, and to make it clear that Silla was a maritime state.

초 록

「新羅는 海洋國家 였다.」라고 할 때 9세기 張保臯의 해상활동을 제외하고는 설명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8-9세기 張保臯의 해상활동이 東아시아 海上權과 交易權을 制霸 하였다 는 역사적인 과정을 이해할 때 新羅는 海洋王國으로 정립될 수 있다. 張保臯가 唐에서 확보한 교역활동 근거지를 新羅의 莞島에 淸海鎭을 설치한 후 나타나는 신라의 位相 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 정리 하고자 한 것은 지금까지 역사의 그늘에 놓여 있었던 張保臯의 실체는 무엇이며, 9 세기에 있어 그의 활동이 동아시아 사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하는 문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라이샤워 교수는 張保臯의 신라 진출과 淸海鎭 設鎭 후의 역할에 대해 장보고를 해상왕국의 貿易王 이라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唐에서의 張保臯 활동과 신라 청해진의 진출과정에 대해 주안점을 두고

考察 하였다. 이를 위해 8-9 세기에 나타나는 新羅 下代 골품귀족들의 경제기반과 산업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와 산업발달은 장보고의 청해진 진출과 어떤 관계를 가졌는가에 대해서 교역적인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그리고 張保臯의 청해진 진출과 관련하여 既 研究者들의 다양한 견해를 재정리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그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보다 당의 절도사와 장보고와의 관계, 그리고 장보고의 청해진 設鎮 前의 일본과 신라와의 교역관계를 광범위한 영역의 정리를 통해서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는 장보고의 귀국과정과 관련하여 나타난 신라조정 의 문제와 골품귀족들의 실태와 관련하여 정리하였다.

본고에서 연구하고자 했던 주안점은 장보고의 해상세력의 배경과 在唐 新羅人 社會, 在日 新羅人 社會가 어떻게 연결되고 있었는가 하는 문제와 청해진 진출후의 활동들을 정리하는데 있었다. 이러한 작업은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에 納妃문제로 반란을 일으켰다가 암살 당했다는 짧은 記錄 뒤에 숨겨진 張保臯 대사의 한 시대와 신라가 해양국가임을 밝히려는데 목적을 두었다.

I . 머리말

古代國家로서의 新羅는 三國 중 가장 後進國이었다. 新羅의 三國 통일은 唐 세력의 작용에 의해 얻어진 결과이지만, 통일 이후의 新羅社會와 문화는 政治·經濟面에서 새로운 문화의 複合과정과 民族의 統合이라는 크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그 변화는 麗·濟의 통합으로 나타나는 전쟁의 종식과 民族의 移動을 통해 각지의 產物과 交流의 확대라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唐과의 활발한 交流는 文化的·經濟的인 면에 큰 영향을 받았고, 이를 통해 國內의 産業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統一新羅의 변화는 당시 唐으로 보낸 朝貢品의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¹⁾ 신라의 활발한 산업활동은 文武王代(A.D 668)부터 8-9 세기에 걸쳐 수준 높은 朝貢 품을 唐에 보내고 있었다.²⁾ 이는 張保臯 出現 以前부터 신라의 産業構造가 크게 변화하고 있음을 알려 주는 것이다. 즉 統一新羅는 엄격한 骨品 制度

* 韓國海洋大學校 國際大學 教授

1) 『三國史記』 卷七, 新羅本紀.七 文武王十四年條

唐에보낸 朝貢品은 朝霞紬,魚牙紬,鏤鷹鈴,海豹皮,金銀등의 高級織物과 金銀細工品등이다.

2) 孫兌鉉, 『韓國海運史』, 亞成出版社,1982 PP.44

를 중심으로 한 귀족사회가 構成되어 있었고 그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産業構造 속에서 나타나는 金屬工藝, 織物工藝 기술은 唐의 수준을 능가하는 생산능력을 소유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張保臯의 淸海鎮 設鎮 과정을 신라 産業構造의 발달과 관련한 귀족들의 경제 기반을 통해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즉, 張保臯 출현 以前부터 통일 신라는 唐과의 朝貢貿易을 이루어왔고 그에 따른 私貿易도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광범위한 私貿易의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일본 東大寺, 正倉院의 寶物 중 신라와의 交易에 의해 이루어진 것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張保臯의 出現 前 8-9세기 韓·中·日의 交易관계가 정립되어 있다는 것은 신라의 산업 발전 없이 불가능하며 新羅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교환가치가 높았다는 점을 중시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中國·日本에 대한 公貿易이든, 私貿易이든 海上交通의 발전과 船舶, 航海技術의 變化 없이는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이미 憲德王 八年에 굶주린 백성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 178명이 중국 浙東 地方으로 갔다는 기록³⁾ 을 통해서 船舶과 航海技術이 발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신라의 産業技術 발달과 海上交通의 발달은 병행하고 있었을 것이며, 신라에도 많은 海運活動 종사자가 있었고, 그들에 의해서 私的인 交易 活動이 진행되고 있었을 것이다..

여기서 張保臯의 淸海鎮 進出의 기본적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점에 대해 한번 더 再考察 해야할 것이다. 이는 既存의 연구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張保臯의 청해진 진출전의 唐은 開放政策과 羈縻政策으로 在唐 新羅人들의 독자적인 활동상황이 張保臯와 어떻게 연관되어져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정리해야 할 것이다.

또한 張保臯의 活動以前 羅·唐의 交易構造와 海運活動이 어떤 형태로 정립되어 있는가를 확인 해야할 문제이다.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는 九年 이상 唐에서 생활한 圓仁의 일기를 통해 많은 것이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장보고의 청해진 設鎮前 통일신라인의 해상활동은 분명히 활발했을 것인데도 既 研究者들은 群小·海上人 또는 海賊의 일부로 나타내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8-9 세기 통일신라의 三十五 金入宅을 소유했던 骨品貴族의 실태와 그들의 奢侈욕구가 어떤 방법으로 충족되고 있었는가를 밝혀, 張保臯의 청해진 진출의 목적과 관련여부를 확인코자 하는 것이다. 장보고 출현 이전의 私貿易 형태는 골품귀족들의 경제적 기반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3) 『三國史記』 卷十, 新羅本紀 10 憲德王 13年條
「年荒民飢 抵浙東 求食者 一百七十人」

商業資本 또는 船舶의 建造, 船員의 확보라는 海運構造 아래서 가능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8-9세기 즉 통일 이후 新羅貴族의 實態와 그들의 경제기반이 무엇이며 또한 그들의 사치욕구가 장보고의 청해진 진출 前後에 어떤 형태로 충족되어 졌는가를 밝히는데 주안점을 둘 것이다. 이를 위해 일본 東大寺·正倉院에서 발견된 신라의 遺物과 귀족세력과의 관계를 밝혀 일찍부터 신라의 해상활동이 존재했음을 확인할 것이다. 이는 張保臯의 청해진 진출이 단순히 각종 사료에 散見되는 해적소탕이라는 명분 이외에 또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해 갈 것이다.

일찍 圓仁일기를 통해 장보고를 조명했던 라이사워 교수⁴⁾ 이후 金庠基 교수⁵⁾에 의한 張保臯 연구는 지금까지 장보고의 해상활동을 밝혀주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張保臯의 활동시기에 나타나는 신라의 사회구조, 즉 경제기반, 귀족의 실태, 산업구조 등은 張保臯의 해상활동을 밝히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라산업의 발달과 장보고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Ⅱ. 張保臯 淸海鎮 進出前의 新羅

新羅의 三國 統一은 麗·濟 兩國의 지배계층 붕괴와 각지의 產物 流通이 원활해지면서 확대된 經濟的 토대를 형성하였다. 이는 오직 한 國家의 支配階層으로 存在한 新羅 貴族層에 의해 政治, 經濟의 變化와 產業의 發達, 交易의 확대가 일어나는 時代的 현상이라 할 수 있다. 統一新羅는 엄격한 骨品制度를 중심으로 貴族層이 형성되어 있으며, 골품에 따라 都市와 村落의 產業活動과 民을 支配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統一新羅의 都市 생활 중 骨品 貴族의 실태는 『三國遺事』⁶⁾에 나타나는 三十五 金入宅을 통해 당시 貴族生活의 일면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新羅의 전성기 즉 產業의 發展과 國力의 增大는 武烈王(AD 654-661)~ 惠恭王(765-779)代까지 약 100년간으로 파악된다. 이와 같은 신라의 전성기는 骨品 貴族들의 호화스러운 생활과 사치 풍조를 가져오게 하여 외래품 유입을 위한 交易品

4) E.O Reischauer, 『Ennin,s Diary』, The Ronald Press Company, New york, 1955

5) 金庠基 『東方文化 交流史 論巧』, 乙酉文化社, 1984

6) 『三國遺事』卷1,辰韓條

「新羅全盛之時 京中十七萬天九百三十六戶,一千三百六十坊,五十五里, 三十五金入宅 富潤大家」

의 생산을 통해 산업구조의 발달과 교역활동이 활성화 되었을 것이다. 먼저 新羅의 産業構造를 파악하기 위해 骨品貴族들의 經濟基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奴婢

張保臯의 出現前 나타난 新羅의 社會構造와 貴族의 經濟基盤을 집약해서 나타내준 新唐書⁷⁾의 내용이 있다. 「宰相家에는 祿이 끊어지지 않고 奴僮이三千이고 이와 같은 數의 甲兵과 소, 말, 돼지가 있다. 海島에 牧畜하여 필요할 때 쏘아 잡아먹고 곡식을 빌려주어 갚지 못하면 奴婢로 삼는다」

여기서 宰相家란 宰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라 골품귀족(진골)을 대상으로 서술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新唐書에서 나타난 기록은 新羅貴族들이 가진 經濟基盤의 일부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위 기록에서 奴僮이三千이 된다는 것은 奴隸의 數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실제 그 數는 귀족이 소유하고 있는 部, 所, 食邑 등에 거주하는 集團 隸民과 身分奴隸를 포괄해서 奴僮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다.

여기서 身分奴隸는 비교적 戰爭捕虜와 負債奴婢등으로 골품귀족에게 귀속되어 그들의 경제기반이 되고 있다. 이러한 集團 隸民이나 奴婢들은 耕作勞動과 家內手工業, 雜役 부분으로 나뉘어져 從事되었을 것이다. 분황사의 鍾과 약사여래상을 만드는 匠人에 관한 내용을 나타내고있는 三國遺事⁸⁾의 기록에 의하면 匠人 强古乃未 는 里上宅의 下典이므로 三十五金入宅을 소유한 富潤大家들의 품위에 맞는 일정한 服飾과 신발, 수레 등을 공급하기 위한 手工藝 奴隸들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三國遺事の 里上宅 下典도 이러한 貴族의 奴隸勞動 編制에 따라 구성된 노예일 것이다. 또한 貴族들의 가장 큰 經濟基盤이 되었던 노예들은 私兵의 역할도 담당했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2) 部曲과 所

部曲·所의 集團 隸民도 귀족들의 經濟基盤 중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된다. 部曲은 村落

7) 『新唐書』卷219, 列傳144, 北狄

「宰相家不絕祿 奴僮三千人 甲兵牛馬猪稱之 畜牧海中山 須食乃射 息穀米於人 償不滿 庸爲奴婢」

8) 『三國遺事』卷 3, 芬皇寺 藥師條

「鑄皇龍寺鐘--匠人里上宅下典--匠人木彼部强古乃未」

共同體를 집단적으로 隸屬시켜 가면서 部曲 長, 部曲 吏에게 내부의 自治行政을 맡기고 그 長으로부터 收取를 行하였던 특수지역으로 이는 三南지방에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 따라서 통일기의 部曲은 骨品貴族들에게 集團的으로 隸屬된 隸民으로 파악되어진다. 所는 統一期 이후 生産力의 증대에 따른 部曲의 발전적인 分化로 이해되어질 수 있다. 所는 金所, 銀所 등과 같이 金屬 鑛山등의 특수한 産業을 행사하던 地域일 것이다. 특히 統一期의 귀족들은 그들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한 私兵 확보는 대량의 兵장기 제조와 공급원의 확보를 위해 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또한 遣唐使의 활동과 함께 나타나는 朝貢品을 통해서 신라의 산업이 확대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일 전에는 그 租工品이 原料的 토산품인데 반하여 統一後 聖德王 22年(723年)의 朝貢品⁹⁾은 朝霞紬 魚牙紬 등의 고급직물과 金銀細工品이 수출품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라 朝貢品의 질적인 변화는 部曲이나, 所를 중심으로 한 家內 工場의 발달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고급물품의 생산을 위해 官營工場도 설치되어 세분화되고 분업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¹⁰⁾ 신라 三五金入宅으로 상징되는 부유 귀족층의 물품 수요 증대에 따라 官營, 私營 工場에서 고급기술은 확대발전하고 있었을 것이다.

(3) 私有地와 祿邑

統一後 貴族은 막대한 私有地를 所有하고 있었다. 이들의 私有地 所有擴大는 왕실로부터 하사 받은 賜田과, 買入, 開墾 등의 방법을 통해 광범위한 토지를 소유할 수 있었다. 奴僮의 勞動力과 풍부한 財力을 가진 귀족은 開墾도 행하였을 것이고 또한 농민의 토지 占奪도 배재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土地 買得은 고리대의 형태로 흡수되어진 것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私有地와 함께, 牧場을 소유하였음은 앞의 新唐書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귀족들은 목장과 사유지, 祿邑을 통해 그들의 세력 근거지를 확보하여 통일신라 말기 96角干의 난을 일으킬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다고 본다. 祿邑은 일시적인 賞賜로 지급되는 租와는 달리 계속해서 지급되는 祿의 성격으로 본다면 稅租를 일정한 지역에 지정하여 직접 收稅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경우 收稅者는 그들의 전통적인 族的 지배기반

9) 『三國史記』卷8, 新羅本紀 聖德王22年條

「王遣使入唐.獻美女二人」,「夏四月.遣使入唐 獻果下馬一匹 牛黃 人蔘 朝霞紬 魚牙紬 鏤鷹鈴 등」

10) 『三國史記』卷 39,雜誌 8 職官條

「陵色典大舍一人 史一人 朝霞房 母二十三人 染官母十一人」

을 가졌던 지역에 收稅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며, 그렇게 본다면 단순한 租 보다는 그 지역의 力役까지도 지배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 따라서 이는 食邑과 같은 성격으로 변모해 갔을 것이다.

食邑은 緣故가 있는 지역에 토지를 지급하여 그 지역의 통치, 收租, 力役을 관장했던 것으로 三國史記에 散見되고 있다. 金官伽倻 구해에게 그의 舊都를 食邑으로 주었고¹¹⁾ 金庾信에게 食邑 百戶를 주었으며¹²⁾ 金仁文에게는 食邑을 두차례 3백호와 5백호를 지급하였다.¹³⁾ 또 궁복(장보고)에게 食實封 2천호를 주었다.¹⁴⁾ 통일신라기에 나타나는 토지 제도의 실태를 살펴볼 때 실제 장보고 지배하에 있던 청해진을 중심으로 한 그의 私民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 보겠다.

이상에서 본 통일기 신라의 산업발달과 관련하여 나타난 골품귀족들의 경제적 기반은 호화스러운 생활과 사치풍조가 만연하게 되어, 朝貢, 回易 形態의 公貿易이나 附帶貿易으로 唐의 高級商品이나, 文化財에 대한 需要를 增大 시키면서, 私貿易의 발달을 초래하고 있었다.

이는 신라의 産業發達에 따른 문화의 향상과 新羅貴族들의 生活 狀態變化 등으로 民間貿易의 확대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骨品貴族들의 經濟的 기반 위에서 가능한 것이었으며, 그들의 활동은 張保臯의 청해진 출현 이전부터 확산되고 있었다. 이것을 증명해줄 수 있는 기본적 사료가 東大寺 正倉院에서 발견된 新羅 貴族들의 이름이 붙어있는 商品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Ⅲ. 東大寺 正倉院의 寶物과 新羅의 産業構造

正倉院은 新羅 村落(西原京--淸州)의 帳籍이 발견된 곳이다. 新羅帳籍은 7-8세기에 걸쳐 신라 촌락의 생활 양상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였다. 근래 正倉院에서 8세기에 交易되었던 新羅 遺物들이 발견되었고, 그 遺物들을 통해 신라 귀족사회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는 張保臯의 청해진 設鎮 前後 新羅, 日本과의 교역상태를 나타내주는 중요한 자료이며 또한 8世紀 신라 産業構造의 發達과 귀족들의 상관관계를 밝혀주는 중요

11) 『三國史記』新羅本紀 卷4 法興王 19年條

12) 『三國史記』卷43 金庾信傳 下

13) 『三國史記』卷44 金仁問傳

14) 『三國史記』新羅本紀 卷10 神武王 6年條

한 자료이기도 하다. 이 자료는 李成市¹⁵⁾씨 연구의 결과를 참조하였다.

(1) 新羅의 文物

正倉院의 寶物은 奈良 時代 唐과 交流를 통해 남겨진 文化遺産으로 알려져 있는데 의외로 新羅文物이 다량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正倉院의 中倉에는 전체 15挺의 墨이 전하는데 그 중에 新羅의 船舶形 墨이 2挺 있다. 그것은 중앙에「新羅楊家上墨」과「新羅武家上墨」이 陽刻 되어져 있다. 지금 이 자료를 통해 파악될 수 있는 것은 新羅의 交易商品 들이 張保皋의 청해진 진출을 전후하여 唐, 日을 통해 활발히 전개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위의 墨안에 양각된 「楊家」「武家」는 墨을 제조한 家号이며, 그 墨은 國外에 수축을 전제로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正倉院에는 상당한 수량의 椀(주발), 皿(그릇), 匙(술가락)가 보관되어 있는데 그 중에 몇 점의 皿 밑에 「爲水及末」이라는 針書가 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여기 爲水는 신라의 人名이며 及末은 신라의 官位(17관등중 11등의 官位)이다. 이렇게 볼 때, 이 皿은 신라 官人의 소유물로 판명된다.

그 외 7-8세기 新羅土器인 長頸壺가 다량 보관되어 있는데 그것은 선박으로 운반되어 질 때, 배의 흔들림에 강하여 내용물을 보호하는 기능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 그 안에 액체나 분말을 넣어 신라에서 반입되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 雁鴨池 出土遺物과 正倉院 寶物

雁鴨池는 文武王 19년(674)에 신라 王都(경주)에 만들어진 宮苑池이다. 신라 멸망 후 그 대로 방치해 두었던 것을 1975년 3월부터 9개월간 發掘 조사하여 1萬 5千점에 걸친 유물들이 발굴되었다. 이는 新羅隆盛期인 8세기의 宮中 일상 생활용품 등이며, 貴族들의 생활상을 밝혀주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있다. 또 이 발굴은 正倉院의 보물과 신라문물의 관련을 확인시켜 주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雁鴨池의 발굴 성과는 장보고의 출현 전부터 신라의 산업 발달에 따른 귀족들의 생활을 밝혀주는 자료의 제공과 日本 正倉院에 보관된 다

15) 李成市, 『東아시아의 王權과 交易』, 靑木書店, 1997

량의 보물들이 신라의 제품임을 밝혀주는 역할을 통해 韓·日간의 文物交流가 왕성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正倉院 보물에는 원형과 타원형의 匙가 345점이 있다. 이러한 유형의 匙는 雁鴨池에서 출토되었고 그 이전 황해도 평산, 충청도 부여 등지에서도 출토되고 있었던 통일신라시대의 전형적인 匙라고 추정되어 진다. 正倉院에 보관된 匙중에는 포장된 상태의 타원형인 것과 원형인 것이 각 한 묶음씩 합해서 두 묶음이 한 組로써 종이에 싸여있다. 이것을 볼 때 여기서도 두 묶음을 한 組로 사용하고 있음을 나타내주며 이는 雁鴨池 출토 유물과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雁鴨池에서 출토된 鏡(반침대)은 正倉院 보물의 鏡과 동일한 것으로서 주목된다. 雁鴨池 출토 유물은 신라의 궁중에서 사용하던 물품이 다소 포함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장식이 잘된 金銅製 鋏 - 剪子(가위)가 있다. 이 가위의 특징은 구름형의 손잡이와 함께 칼 부분에 등근 銅版이 붙어 있는데 그 부분은 초의 심지를 잘랐을 때, 떨어진 심지를 받기 위한 세공품이다. 따라서 이 가위는 「防災가위」라는 것이 판명되었는데, 正倉院 南倉

에 소장된 金銅 가위는 완전히 이와 同型式의 것이었다. 이는 8세기의 문서(買新羅物解)에 의하면 신라에서 燭臺를 구입한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正倉院의 金銅가위는 신라에서 들여온 것으로 파악된다.

(3) 正倉院 所藏의 毛氈

正倉院 소장된 毛氈은 8세기 신라귀족들에 의한 교역의 형태와 신라 산업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毛氈은 羊毛를 압축하여 만든 모직물이다. 이와 같은 毛氈類는 원래 중국 塞外 지역에서 시작된 것이다. 서역과의 교통이 융성하였던 唐時代부터 중원 지방에 유행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毛氈이 신라에서 생산되었고, 그것이 일본지역으로 수출되었다는 것은 신라의 산업이 크게 발달해 있었음을 증명해주는 자료가 된다.

正倉院에는 色氈, 花氈을 합쳐 약 50床이 있는데, 그 가운데 麻布의 절단이 봉해진 곳에 墨書가 쓰여진 것이 있다. 이것은 그 墨書를 통해 신라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6)

16) 李成市 『上揭書』 p.35

(A) 色氈貼布記

紫草娘宅紫稱毛一
念物糸乃綿乃得追..

(B) 花氈貼布記

行卷韓舍倆花氈一
念物得追...

위의 布記문은 일반적인 漢文의 어법이 아닌 신라사회에서 사용되어 지고 있는 특수용어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정확한 布記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보다 이 布記文이 신라인의 것이며, 또한 교역의 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는 이해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먼저 (B)의 「韓舍」는 신라 17관등 중의 한 官位를 나타내 주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韓舍는 12官等인 大舍의 異表記로서 8세기에 들어 처음 사용된 것을 표기한 것으로 추측된다. 17)

또한 布記 A의 「紫草娘宅」은 앞의 正倉院 寶物의 墨의 명문에 「新羅楊家上墨」이라는 문자가 製造業者 家號였음을 참고 한다면 이 또한 毛氈의 제조업자 가호였을 것이라는 추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제조업자가 수출 상인을 겸하는 경우와, 또는 제조업자가 상인에게 판매를 위탁했을 가능성과 신라 상인이 중국에 集積되어 있는 문물을 일본에 가져간 媒介的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추정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위 표기문을 통해서 볼 때 신라 상인의 활동과 관련되고 있음이 확실하다. 8세기 신라 수도에 集住하고 있는 골품귀족들은 왕실과 통혼 관계를 가지면서 확대된 경제기반을 배경으로 생산활동과 교역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자료이다.

위자료 중 「念物」은 新羅物과 동일한 의미로서 신라 문물의 내용이나 또는 교역의 대가로 지불되어 저야 할 물품의 종류, 분량 등을 표기한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正倉院의 毛氈에서 발견된 표기의 자료는 장보고 출현 전 신라는 이미 公貿易의 형태속에서 私貿易이 성행하고 있었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이는 신라 귀족들이 일본의 絹製品을 획득하기 위해 毛氈으로 교역을 하였다는 점과 연결해서 추정되어 지는 것이다.

(4) 手工業과 新羅貴族

그런데 위 正倉院에서 新羅 製造業者의 家號가 있는 毛氈의 생산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이해하기 위해 신라귀족들의 경제적 기반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新唐書¹⁸⁾ 新羅

17) 武田幸男『金石文資料에서 본 新羅官制』山川出版社,1977

18) 『新唐書』卷220,列傳 145,東夷 新羅傳
「畜無羊 少驢羸 多馬」

傳에서는 家畜類 에는 羊이 없고, 말이 많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羊毛을 원료로 하는 毛氈이 신라에서 어떻게 제조되었는가 하는 문제이다. 위에서 본 布記의 내용은 8세기 이후 新羅·日本간의 교역에 毛氈이 交易品으로 있었던 것은 틀림없다. 문제는 毛氈의 생산을 두고 본다면 신라상인에 의한 통상무역이라는 관점에서 논의되어질 수 있다. 또한 교역의 담당자가 제조업자일 수 있는 신라귀족에 의해서 생산되어질 수 있었던 8세기의 신라의 산업구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일본의 絹製品을 획득하기 위해 毛氈을 대가로 지불한 紫草娘宅은 신라 王京에 거주하는 眞骨貴族이었다. 그렇다면 일본과의 교역에 참여하고 있던 그들의 경제기반과 그들의 생활양식은 어떠한가에 대해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장보고의 청해진 진출 후 興德王 9년(834)에는 사치에 대한 抑制法令¹⁹⁾이 내려지고 있다. 「…世俗은 점점 경박하여 백성들은 사치와 화려를 다투며 오로지 기이한 물건의 진기함을 숭상하고 도리어 지방산물의 속됨을 싫어하므로……풍속의 허물어짐은 오랑캐를 능가하기에 이르렀다……혹 法을 범하면 땃땃한 형벌로 다스리겠다.」그리고 車騎에, 器用, 屋舍에도 골품의 차이에 따라 차등 있게 억제법령을 내리고 있었다. 이 법령은 8-9세기에 걸쳐 나타나는 新羅 骨品貴族을 비롯한 王京人의 資産과 消費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이 법령에서 살필 수 있는 것은 진골귀족의 존재형태나 그들의 경제기반이 최상위에 있었고 또한 여러 가지 규제를 가장 먼저 받는 그들의 실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이들 귀족들의 경제기반인 大土地 所有의 실상도 다음의 자료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三國史記 文武王 9年(669)條²⁰⁾의 기록은 말 기르는 목장을 174곳이나 골품귀족 太大角干(金庾信), 太角干(金仁文) 角干, 伊滄, 蘇判, 波珍滄, 大阿滄에게 분배해 주었던 사실을 알리고 있다. 이 資料에서 본다면 말 飼育場은 그 시기에 중요한 군사시설의 일부이기 때문에 어느 일정한 지역에 편재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진골귀족들의 토지사유는 지방각처에 말 사육장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었다고 생각된다. 앞부분의 신라귀족의 경제기반에서도 살핀바와 같이 황룡사 범종의 주조에서 里

19) 『三國史記』 卷22 雜誌 色服條 興德王 9年條

「人有上下 位有尊卑 名例不同 衣服亦異 俗漸燒溥 民競奢華 只尙異物之珍奇 却嫌土產之鄙野 禮數失於逼濫 風俗至陵夷 敢率舊章 以申明命 苟或故犯 固有常刑」

20) 『三國史記』 卷6 新羅本紀 文武王9年條

「領馬陸凡一百七十四所 屬所內二十二 官十 賜庾信太大角干六 仁問太角干五 角干七人各三 伊滄五人各二 蘇判四人各二 波珍滄六人 大阿滄十二人各一 以下七十四所 隋宜賜之」

上宅 匠人の 존재는 진골귀족들의 사적인 匠人이 국가적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上院寺銅鐘의 주조에 참여한 照南宅의 仕某도 私匠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골품 귀족들은 풍부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私匠 및 다수의 기술자를 예속시키고 있었다. 이와 같이 張保臯 進出前의 新羅社會構造는 골품귀족들에 의한 산업활동과 교역활동을 통해 사치한 생활이 만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장보고의 신라 淸海鎮 진출은 興德王代에 해적소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신라의 발달한 산업구조에 따른 충분한 교역상품과의 관련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IV. 張保臯 淸海鎮 設鎮 以前 新羅의 交易構造

신라의 三國統一은 産業의 급속한 발달과 활발한 交易活動을 통해 新羅의 社會構造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바 있다. 産業의 發達과 文化의 향상은 新羅 骨品貴族들의 物品需要의 욕구를 확산시키고 있었다. 이는 지금까지의 朝貢貿易만으로 그 욕구를 충족할 수 없어 私貿易의 확대에 이르게 되었을 것이다. 張保臯의 淸海鎮 設鎮 以前부터 신라는 唐·日과의 交易活動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삼국통일 후 文武王代에 唐과의 公貿易(朝貢貿易)은 美女나 金, 銀, 銅, 우황, 布 등의 빈약한 것이었다.

그후 聖德王 22년 (723)년 三月에 美女 2명을 바쳤는데 당의 玄宗은 「이 여자들은 모두 王의 姑姊妹로서 本國을 이별하고 떠나는 터이므로 나는 차마 머물게 할 수 없다」하고 돌려보냈다.²¹⁾ 이와 같이 통일후의 신라의 산업은 빈약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그후 憲德王代(810)에 이르면 公貿易에 있어 그 質과 量에 현저한 변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哀莊王 7년의 기록에 「새로 불사의 創建을 금하고 …錦繡로써 불사하는 것과 金銀으로 器物을 만드는 것을 금한다…」²²⁾라는 것을 보아도 신라인들의 생활구조의 변화를 알 수 있다. 앞에서 본 골품귀족층의 가내공장의 발전도 신라의 산업구조의 변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産業構造의 변화는 物品需要의 충당을 위해 朝貢貿易이 아닌 私貿易의 성행을 가져 왔을 것이다. 이러한 私貿易은 8세기말 9세기초부터 羅·唐의 정치적 통제력이 弛緩

21) 『三國史記』卷8 新羅本紀 聖德王 22年條

「王遣使入唐 獻美女二人---玄宗曰 女皆王姑姊妹 違本屬別本國」

22) 『三國史記』卷10 新羅本紀 哀莊王 7年條

됨에 따라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했다. 私貿易의 발달은 海上交通의 발전을 바탕으로 했을 때 가능한 것이었다. 海上交通은 삼국시대에도 한반도 서해안을 통해 황해를 횡단하였으며 統一新羅時代에도 역시 황해 橫斷로를 통해 山東半島에 당도하였다. 23) 이 시대에는 계절풍의 효과적인 이용 등의 航海術, 造船術의 발달이란 면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張保臯 출현 전 私貿易의 담당자는 신라에서 형성된 해상세력으로 본다면 그들은 骨品貴族 세력과의 관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앞에서 살핀 일본 正倉院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된 바 있다. 또한 唐代를 중심으로 하여 中國沿岸 일대에 新羅人의 세력이 광범위하게 자리잡고 있었으니 이는 물론 新羅坊이라는 居留地이다. 물론 在唐 新羅人이 唐代에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시대를 중심으로 장보고의 활동을 확인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시대를 한정해서 고찰하려는 것이다. 이들 在唐 新羅人들은 張保臯의 출현 전부터 당의 羈縻政策에 의해 구당 신라소라는 특별한 행정기관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의 생활구조는 圓仁行記²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ㄱ. 楚州(신라선 9척과 암해자 60여명을 일시에 동원할 수 있었던 해운조직의 중심센터) ㄴ. 揚州(무역상이던 왕칭이 있었고 또한 신라선을 건조하던 선공집단이 있었다.)

이 記錄등을 통해서 볼 때 在唐 新羅人들의 활동은 장보고 출현 전부터 市場貿易과 관련하고 있었음을 생각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한다면 朝貢 貿易船과 함께 했던 私貿易은 신라 본국상인과 재당 신라인간의 교류가 활발했을 것이라는 생각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신라골품귀족의 사치한 생활을 충족시키기 위해 『三國史記』권8 성덕왕32년(733)²⁵⁾에 나타나는 앵무새 암수 한쌍, 金, 銀, 細器物, 五色羅採 등의 하사품은 이미 장보고 출현전의 羅·唐의 교역실태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지금까지 장보고의 청해진 設鎮 이전의 신라 교역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당과의 교역실태를 살펴보았다. 8世紀에 걸쳐 新羅交易의 형태는 기록상으로는 公貿易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통일신라의 사회구조 중 골품귀족들의 방대한 경제기반을 통하여 살펴본다면 私貿易의 활성화는 불가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다면 8世紀 日本과의 交易도 私貿易의 형태로 이해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23) 孫兌鉉, 『前掲書』 p.42

24) 圓仁, 『入唐求法巡禮行記』會昌5年 9日條

25) 『三國史記』卷8 新羅本紀 聖德王 32年條

『日本書記』天武條²⁶⁾를 보면 신라에서 일본으로 전해진 물품은 金, 銀, 鐵釘, 등이며, 같은 자료에서 낙타와 細馬, 綾羅, 약물류 등을 신라로부터 수입하고 있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장보고 출현 전 이미 신라는 중국을 통하여 서방, 남방 지역의 낙타 등을 수출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續日本紀』²⁷⁾의 기록은 입관된 신라물품을 구매하려는 좌우 대신을 비롯하여 대관, 왕녀들에게 구매대금으로 太宰府 綿 7만여 톤을 하사한 내용을 밝혀주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당시의 신라무역이 대규모로 성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위에서 살펴본 일본 東大寺 正倉院에 소장되어 있는 『買新羅物解』²⁸⁾ 라는 문서를 통해서 확인될 수 있다. 『買新羅物解』는 관품 5위 이상의 일본귀족들이 신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그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의 내용을 기록하여 대장성에 제출한 구입허가 신청서이다. 『新羅物解』의 내용중 天平勝寶 4년 6월 (752년 新羅 景德王)의 기록을 보면, 신라왕자 韓阿滄金泰廉 등 사절단 일행이 平城京에 머물었다. 이러한 기록은 『續日本紀』卷 18「王子金泰廉 貢調使大使金 送王子使金弼言 第七百余人 船七--」라고 그 시기의 상황을 알려주고 있다.

왕자 金泰廉의 일본 사절단은 그 동안 일본과 소원했던 양국간의 국교를 해소하기 위해 奈良 東大寺 大佛의 開眼法會에 참석하였다. 여기서 주목되어야 할 사실은 700여명의 사절단 파견이라는 것이다. 이 사절단의 성격은 公貿易의 관행을 위해 파견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는 일본에서의 私貿易을 위한 신라상인 집단을 위장한 朝貢使였음이 분명하다. 신라의 交易品은 주로 金屬品, 器物, 香料, 藥物 등이며 香料는 靑木香, 丁香, 甘松香, 龍腦香 등인데 주로 南中國, 동남아시아, 인도, 아라비아 産이 많았다. 이와 같은 교역품의 내용을 통해서 볼 때, 8세기에 있어, 이미 신라는 仲介貿易이나 直接貿易 등 활발한 무역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일본이 7세기로부터 8세기 중엽까지 신라와의 교역에서 구매한 新羅物은 고가 품들이었으며 서역, 동남아, 중국 등지에서 산출되는 상품들이 두루 포함되어 있다. 779년 惠恭王때 양국 정부간의 공식관계가 두절되었다. 張保臯의 출현 이후의 변화기에 들어서야 일본의 귀족들은 그들이 필요한 상품을 구입하게 되었을 것으

26) 『日本書記』卷29 天武8年 10月條

「新羅遣阿滄金頂那 沙滄薩驟生朝貢也 調物 金銀鐵錠 錦絹布皮 馬狗驢 駱駝之類 貢金銀刀」

27) 『續日本紀』卷29 神護景雲2年 10月 甲子條

「-- 左右大臣太宰綿各二萬屯 大納言韋弓削御淨朝臣清人各一萬屯 從三位文室真人淨三六千屯 ---爲買新羅交關物也」

28) 李成市『前揭書』 pp.83-84

로 본다. 그렇다면 張保臯의 출현 전까지 신라상인의 활동과 교역의 내용들 즉, 중국(唐)과의 왕래와 西域商品까지 일본에 수출했던 그들의 실체는 무엇인가? 이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으로서 통일후 骨品貴族(眞骨)의 經濟基盤과 그들에 의해서 형성된 新羅 産業構造의 확대에 따른 교역활동이라는 점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신라의 교역구조는 장보고의 청해진 進出前 이미 신라 商人들과 활발한 交易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이는 張保臯의 청해진 진출과정에서 나타나는 상황을 통해서 볼 때 이미 張保臯 본인이나 그 貿易團 이 신라를 왕래했고 일본과의 교역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V. 9世紀 張保臯의 淸海鎮 進出

(1) 新羅 下代 社會構造의 變化

앞 부문에서 살펴본 統一新羅의 産業繁榮은 統一後 확대된 영토와 全體 經濟權이 수도인 慶州로 집중되어 오면서 가능해진 것이었다. 신라 下代에 들어서면서 골품귀족들의 사치와 안일한 생활이 팽배해 가는 동안 生産擔當者였던 地方農民들은 中央貴族의 착취에 견디지 못하여 流亡 또는 盜賊 化하고 地方勢力家들은 중앙정부에 저항하는 下代의 현상이 초래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신라 하대는 惠恭王代에 최초로 일어난 骨品(眞骨)귀족들의 반란으로부터 시작되어 진다고 본다. 이는 『三國遺事』권2 29)의 기록에 보이는 바와 같이 一吉澮 大恭의 난을 시작으로 五道 州郡의 96角干이 일어나 相戰하면서 新羅 下代가 시작되었다. 이로부터 155년간 20왕이 交替되는 혼란한 정치구조를 가지게 되며, 중앙에서는 끊임없는 왕위 쟁탈전이 계속되는 동안 농민들은 流民이 되거나 도적이 되고 있었다. 또한 沿海岸地方의 農民이나 漁民들은 海外로 流亡하거나 海賊이 되는 자들이 많아 中國, 日本의 해안지방을 소란케 하였다. 『日本後紀』 권22 弘仁三年正月條(憲德王 4년 812년)에 신라의 海賊船 20여척이 대마도를 침입하였고 景文王 9年 869년에 新羅海賊이 日本地方民이 上貢하는 綿을 약탈하였다는 기록을 접할 수 있다.

이는 中央貴族과 결탁되어 있던 既存의 商人들이 王位爭奪戰으로 혼란한 시대적 상황속

29) 『三國遺事』卷2 惠恭王條

「七月三日 大恭角干 賊起 王都及五道州郡並九十六角干相戰大亂」

에서 그들의 활동이 정지되고 있었던 이유와 또한 日本과의 정식적 국교가 단절된 이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活動領域이 소멸된 상태에서 나타난 현상일 것이다.

下代로 내려오면서 國家紀綱이 解弛해짐에 따라, 貴族들의 사원과 장원은 더욱 확대되었고 이와 비례하여 일반농민에 대한 收取는 더욱 가혹하여 농민들은 거의 몰락하여갔다.

원래 王室이나 中央貴族들의 호화생활은 農民으로부터의 수취와 밖으로 海外貿易에서의 이득을 독점함으로써 가능하였다. 따라서 골품귀족들의 사치풍조의 심화는 사회기강의 解弛에 따라 골품제도마저 紊亂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張保臯의 청해진 設鎮 時期인 憲德, 興德王代에 들어 만성적인 饑饉과 전염병까지 유행함으로써 농민들의 실정은 심각한 상태였다. 『三國史記』新羅本紀 제10에 나타나는 憲德王, 興德王의 자료를 통해서 신라 하대의 심각성을 살필 수 있다.³⁰⁾

- <1> 憲德王 8년 (816) --- 「年荒民飢, 抵 浙東求食者 一百七十八」
 - ” 11년 (819) --- 「三月, 草賊遍起, 命諸州郡都督太守捕捉之」
 - ” 12년 (820) --- 「春夏·早·冬·飢」
 - ” 13년 (821) --- 「春·民饑, 賣子孫自活」
- <2> 興德王 2년 (827) --- 「秋八月, 太白晝見, 京都大旱」
 - ” 3년 (828) --- 「漢山州 川縣妖人自言, 有速富之術衆人頗惑之」
 - ” 7년 (831) --- 「春夏早 亦 地 …… 八月, 飢荒, 盜賊編起」
 - ” 8년 (832) --- 「春, 國內大飢, 冬十月 民多 疫死」

여기에 열거한 史料는 憲德·興德王代의 일부분이며, 이러한 현상은 이미 中代末期인 聖德王, 景德王代부터 농민층이 몰락하기 시작하였다.

聖德王 4년(705)~6년(707)에 饑饉이 극심했고, 景德王 6년(747)에 농민이 기근에 시달리며 역질로 사망하고 있었다. 이러한 農民層의 만성적 기근에도 중앙귀족들은 찬란한 귀족 문화를 구가하고 있었다. 따라서 사회 모순은 갈수록 누적되어 도적발생, 유민의 발생을 확대시키고 있었다.

(2) 張保臯의 淸海鎮 進出과 設鎮

30) 『三國史記』新羅本紀 卷10 憲德 興德王條

1) 앞부분에서 考察한 8世紀 新羅産業의 발달과 交易活動은 9世紀 張保臯의 출현 이후 청해진 설진과 아울러 우리 역사상 최초로 해운산업과 국제무역을 개척할 수 있었던 배경을 이해할 수 있었다. 淸海鎮 設鎮은 9세기 韓·中·日의 海上權을 지배하며 海上王國을 건설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張保臯의 출현을 9세기로 본다면 신라사회는 下代期로서 정치권의 혼란과 골품귀족들의 호화로운 생활, 농민들의 처참한 생활들이 복합되어있는 시기였다. 이와 같은 시기는 唐에서도 安祿山の 亂과 史思明의 亂으로 중앙의 통제력이 무너지고 地方의 節度使 전성시대로 들어간 時期였다. 이에 따라 경제적 혼란도 적지 않아 黃海를 중심으로 중국인 해적들이 활동하고 있었다. 이러한 시기에 淸海鎮을 設鎮한 張保臯의 출현에 관한 자료는 『三國史記』, 『三國遺事』, 『新唐書』, 杜牧의 『樊川文集』 등이다. 이들 사료를 통해 張保臯는 810년대 자활의 길을 찾아 중국으로 건너갔고, 819년 徐州 武寧軍에서 복무하여 이정기 일가의 蕃鎮 토벌에 공을 세워 武寧軍 소장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³¹⁾

이렇게 볼 때 張保臯는 중국에서 일정한 자신의 위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³²⁾ 라이샤워 교수의 지적대로 淸海鎮 세력은 商業帝國이며, 張保臯를 貿易王으로 표현할 수 있었던 貿易王의 위치는 在唐 新羅人의 활동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선 圓仁日記³³⁾를 통해 9세기 在唐 신라인의 실태를 파악해 보면 다음과 같다.

839년 中國으로 건너가 847년까지 9年 半 동안 唐帝國을 여행하면서 남겨놓은 圓仁의 기록 속에 나타난 在唐 신라인의 활동은 광범위한 貿易商 社會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新羅人 사회는 山東半島 南岸一帶와 淮河下流一帶를 따라 집중되어 있고 大運河와 淮河를 연결하는 중착지인 楚州는 거대한 新羅租界가 있었다. 이는 그의 일기에서 楚州는 839년 新羅譯語 金正南이 일본사절단의 귀국을 위해 9척의 배를 구하고 이것을 運航할 60명의 新羅人 船員을 고용했던 곳이라고 했다.

또한 漣水縣 에도 新羅坊을 이루고 있었음을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신라인 사회의 最大集團의 하나가 赤山法華院 가까이 에 있음과 牟平縣 乳山浦 부근에도 큰 僑民村이 있음을 말해주고있다.. 신라인 사회는 여러 형태의 신라상인 사회를 형성하고 있으며 중국의 많은

31) 李基東 「9-10世紀 黃海를 舞臺로한 韓中日 三國의 海上活動」
『韓中文化交流와 南方航路』國學資料院 1997 p.119

32) E.O Reischauer 『前掲書』

33) 圓仁, 『入唐求法巡禮行記』

부분에서 그들의 활동 상황을 알려주고 있다.

圓仁의 기록을 보면 唐의 羈縻政策에 의해 중국 東南岸 地域의 回教徒 社會와 마찬가지로 新羅人 사회도 상당한 治外法權의 특전을 가지고 自治權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본다. 따라서 신라인 사회는 楚州, 漣水縣, 揚州를 중심으로 南中國의 明州와 台州, 廣州까지 그들의 활동영역이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들의 生業 형태도 造船業者, 船員, 商人, 海運業者, 製鹽業, 木炭生産과 그리고 國際貿易 종사자들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國際貿易 종사자들은 唐·新羅·日本 뿐만 아니라 아라비아 페르시아 貿易商人과도 交易하며 세계무역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면 張保臯와 新羅人 사회는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먼저 新羅人 사회의 自治的 성격을 파악해 보면 新羅人의 自治單位는 新羅坊이다. 楚州 新羅坊의 책임자는 總管으로서 薛詮이었다. 圓仁日記에 나타나는 新羅譯語는 이들 사회에서 總管 다음 일 것으로 추측된다. 그것은 譯語 劉慎言이 薛詮의 후임으로 총관이 되고 있음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또한 신라인 집단 거류지에는 句唐 新羅所라는 특별한 행정기관이 있었으며 그 책임자를 押衙라고 부르며 張詠이 맡아 있었다. 押衙는 新羅租界를 통괄하며 신라 사절도 관장하고 있었다. 이러한 것은 圓仁日記³⁴⁾에 나타난 기록중 圓仁이 중국관현에 의해 일본으로 강제 귀국 시키려할 때 연안의 新羅人 들로부터 피난처를 찾으려 했고 허가증 없이 상륙하였을 때 신라인으로 위장하여 통과 하려했던 것을 통해서 확인된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볼 때 唐의 신라인 租界가 가지는 역할은 매우 큰 것으로 파악된다. 우선 唐에서의 張保臯 위치에 대해서 고찰해보면 圓仁日記에서 圓仁이 赤山 法華院으로 부터 멀리 떨어져있는 張保臯의 직접적인 비호를 받는데 대한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赤山 法華院은 張保臯 해상 貿易團의 거점으로서 매년 쌀 500석을 收穫할 수 있는 토지를 기부하였고 또 그에 의해 건립된 사찰이란 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증명해주는 것은 張保臯의 淸海鎮 進出後 張詠과 王訓, 林大使가 法華院을 관리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확인 된다. 赤山 法華院과 唐의 신라인 사회를 관할하던 張詠은 아마 장보고의 지배하에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사실 중 더욱 중요한 것은 신라인 사회나 신라 상인들의 해상활동은 圓仁이 중국에 거류하기 以前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다는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는 圓仁日記중 圓仁이 揚州에서 만난 還俗僧 李信惠의 증언으로 명백해진다.

34) 圓仁, 『入唐求法巡禮行記』會昌5年 9月 22日條

이렇게 볼 때 張保臯는 武寧軍 입대 以前이나 武寧軍 소장 시절부터 在唐 신라인 사회와 新羅商人社會를 組織하고 체계화하여 자신의 명령계통 아래 두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바와 같이 張保臯의 활동은 武寧軍 소장 이었기 때문에 당에서 신라인 사회를 지배한 것이 아니라 일찍부터 신라인 租界에서의 활동은 컸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樊川文集(杜牧)에서 나타난 張保臯,鄭年의 무술실력을 통해서도 이해가 되어진다. 그렇다면 張保臯의 귀국 즉 청해진 設鎮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既 研究者들의 논거를 통해 재정리 해보기로 한다. 李永澤 교수³⁵⁾는 9세기 慢性的 饑饉과 政治的 혼돈 속에 놓여있는 신라 본국의 상황을 설명하고 이 때문에 중국으로 移住하려는 자들의 수가 증대되고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주 희망자들을 수송하는 群小 해상세력을 자신의 통제아래 두는 한편 在唐 신라인들을 효과적으로 연결하여 羅. 唐. 日 三國貿易을 모두장악 해야겠다는 포부가 작용했을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張保臯의 포부는 9세기 한국의 각 島嶼를 중심으로 海上 활동을 하고있는 群小 商人들이 在唐 신라 교민 사회의 무역활동에 방해가 되었을 것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논조와 동일한 내용을 발표한 盧德浩씨³⁶⁾도 있다.

李東基 교수³⁷⁾는 唐은 821년 李師道の 蕃鎮 討伐 후부터 兵員의 수를 감축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張保臯가 소속된 武寧軍도 減縮政策이 실시되었을 것이며 張保臯가 군을 떠난 계기가 귀국동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은 蒲生京子³⁸⁾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다. 金德洙교수³⁹⁾는 淸海鎮 設鎮 이유를 국제무역의 확대와 관련하여 설명하고있다. 즉 韓. 中. 日 3국의 교통에 있어 중간 寄港地로서의 청해진이 가지는 중요성과 航海 管理者로서 그 地理的 역할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중국학자 王杰⁴⁰⁾교수는 武寧軍 절도사 王智興과의 관계를 中國측 史料를 통해 張保臯의 귀국동기와 淸海鎮 設鎮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王杰 교수는 張保臯의 귀국동기를 徐州 郡 節度使인 王智興이 張保臯를 강제 축출하였기 때문에 歸國 하였다 라고 하며 그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王智興은 徐州의 군대 병사로부터 從軍하여 節度 副使 까지

35) 李永澤, 「張保臯 海上勢力에 관한考察」, 『海洋大論文輯』14, 1979, p.68

36) 盧德浩, 「羅末 新羅人の 海上活動에 관하여」, 『史叢』, 高大史學會1985, pp.23-24

37) 李基東, 「張保臯와 그의 海上王國」, 『張保臯의 新研究』, 時事文化社, 1985

38) 蒲生京子, 「新羅末期 張保臯의 擡頭와 反亂」, 『朝鮮史研究會』1979

39) 金德洙, 「張保臯의 海上貿易에 관한 一考察」, 『韓國海運學會誌』, 韓國海運學會 1988

40) 王杰, 「An Examination of boat form between the Chao Chuan of Tang dynasty and Zhang Baogao, s Trader」, 1997, 韓國航海學會 세미나 發表資料

단계적으로 승진한 후 822년 반란을 일으켜 武寧軍 절도사가 된 사람이다. 왕지흥이 徐州에서 벼슬했던 시기를 780년부터 832년까지로 본다면 張保臯는 王智興과 같이 근무한 셈이 된다. 여기서 王教授는 王智興의 탐욕과 편협함을 사료를 통해 증명하면서 張保臯의 귀국 동기를 밝히고 있다. 첫째 張保臯가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재임중 張保臯를 승진시키지 아니하였다. 둘째 王智興은 병사들로부터 존경받고 있었던 石雄 장군을 퇴진 시켰다. 셋째 張保臯의 친구인 鄭年이 武寧軍에서 나와 連水縣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었다.

이러한 것을 토대로 하여 張保臯와 鄭年은 동일하게 王智興으로부터 강제 퇴임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고 했다. 王教授는 이러한 사실은 829년 王智興이 부사로 반란을 일으켰을 때 張保臯는 王智興의 반대파에 있었던지 王智興에게 적극적인 도움을 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축출되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既 研究의 성과는 張保臯의 청해진 設鎮의 동기나 목적을 정립시키지 못한 결과이다. 張保臯의 歸國동기는 위에서 정리하였던 8세기 新羅 産業構造의 발달과 골품귀족들의 경제 기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결과와 연결하여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장보고 출현 전부터 신라는 高價의 상품을 제조하였고 또 船舶, 航海技術까지 발전시켜 唐, 日과의 交易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 한 바 있다. 9세기 張保臯의 출현은 앞에서 고찰한바와 같이 唐의 新羅 商人 사회를 지배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막대한 富를 축적하여 法華院 건립등을 추진하였으며 年收 五百米石의 莊田을 寄贈할 수 있었다. 환언한다면 당의 신라인 사회를 지배하는 張詠, 崔暉십이랑 등을 포괄적으로 관장하면서 大商人으로 존재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張保臯의 청해진 設鎮의 동기를 定意 하기 전에 신라의 사회구조를 살펴보면 신라 善德王이후 (780-835)의 혼란한 정치상황으로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唐도 安祿山의 亂後 신라와 같이 중앙통제력이 약화되어 羅, 唐간의 私貿易은 크게 성행하고 있었다. 新羅는 骨品貴族과 國家의 착취, 天災地變에 시달렸던 지방민들이 선택할 수 있었던 길은 他國에의 망명과 生業의 수단으로 변경 海岸地方에서의 船舶建造, 私貿易 商으로 변모해갔던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기 唐의 新羅人 사회를 관장했고 상인 사회를 지배할 수 있었던 張保臯는 해상무역의 확대를 시도했을 것이다. 물론 해상무역의 확대란 羅, 唐, 日 그리고 페르샤, 아랍등과의 교역 확대일 것이다. 이는 張保臯가 武寧軍 소장으로서 淮河 하류 일대에서 재산을 축적해갔으며 新羅人 租界에서 수령으로 두각을 나타내었고 圓仁 시대에는 半軍人的인 관리로서 그의 활

동은 동아시아 해상권 확보에 관심을 가졌을 것이다.⁴¹⁾

삼국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淸海鎮은 新羅 興德王 3년(828년)에 設鎮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경위는 張保臯가 왕을 배알하여 海賊이 新羅人을 잡아다가 중국에서 노비로 팔고 있으므로 淸海에 鎮을 설치하도록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자 王이 군사 만인을 주어 鎮을 설치하게 하였으며, 그후로는 奴婢를 잡아다가 파는 해적이 없어졌다는 기록이 있다. 이상의 기록만으로는 淸海鎮의 設鎮 경위가 명백하게 밝혀진 것이라고 하기엔 불충분하다.

우선 당시 新羅는 엄격한 신분사회로서 적어도 淸海鎮과 같은 鎮을 설치하고 그 수장이 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身分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나 張保臯는 후의 정치분쟁과정에서 海島人 出身(천한 계급출신을 뜻할것이다.)이라고 해서 그 딸의 納妃 문제가 당시 지배계급들의 열화 같은 반대로 좌절된 것 등을 감안할 때 淸海鎮 설치 당시⁴²⁾에 新羅 내에서 淸海鎮의 책임자가 되는데 필요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료의 기록을 통해서는 張保臯가 淸海鎮 設置以前에는 新羅 사회에서 뚜렷한 세력을 형성하였거나 또는 功을 세웠거나 뚜렷한 활동을 했던 흔적도 없다. 身分도 낮고, 국내에 뚜렷한 기반이 없는 張保臯가 왕을 한번 배알하였다고 해서 왕이 선뜻 군사 만인을 내주어 淸海에 鎮을 설치하라고 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여기서 우리는 三國史記의 기록을 분석 흥미해 볼 필요가 있다. 그 기록은 ‘弓福, 성은 張 씨이고 일명 保臯라고도 한다. 당으로 들어가서 軍中小將이 되었다. 후에 귀국하여 왕을 배알하였고 군사만인으로 淸海에 鎮을 설치하였다. 淸海는 지금의 莞島다.’⁴³⁾ 위 기록 중 이 문제 해석에 관련된 부분만 요약하면 (1) 中國에 들어가 軍中 小將이 되었고, (2) 후에 귀국하여 왕을 배알하여 淸海鎮 設鎮 허가를 요청하였고, (3) 왕은 이 請을 받아들여 군사 만인을 주어 淸海에 鎮을 설치하였다. 이는 다시 (1) 張保臯의 在唐활동, (2) 歸國過程 (3) 淸海鎮의 設鎮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3) 在唐活動

기록상으로 보아 張保臯의 在唐활동은 徐州의 武寧軍에서 軍中小將을 지냈다는 것이 유

41) E.O Reischauer, 『中國 中世社會로의 旅行』, 조성을역, 한울사, 1996, p.292

42) 納妃問題가 나올 때는 神武王 擁立時에 세운 功으로 인하여 食邑도 받고 感義軍師를 除授 받는 등 身分이 상당히 상승된 상태였다.

43) 『三國史記』 新羅本紀. 興德王 3年條.

일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관련사료를 종합하여 검토 해 볼 때 張保臯는 入唐하여 軍中小將으로 근무한 것 말고도 在唐 新羅人 집단들의 무역활동을 비롯한 여러 가지 활동과 관련하여 상당한 역할을 하였고, 이 활동을 기반으로 상당한 부와 세력을 축적하였다는 것을 추측하기는 어렵지 않다. 이러한 활동이 武寧軍의 軍中小將이라는 職에 있으면서 전개한 활동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단 武寧軍을 떠난 후의 활동인지는 뚜렷하지 않다. 그러나 圓仁의 일기에 나오는 바와 같이 赤山에 法華院이라는 新羅人 사원을 사재로 건립하였는데 이 사원이 年收穫 오백석을 거둘 수 있는 莊園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張保臯는 당의 新羅人 사회와 당시 당의 지방세력으로서 사실상 그 지역의 통치자로 기능 하였던 節度使⁴⁴⁾와 업무상 긴밀한 연계관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張保臯가 在唐新羅人 및 唐의 東北部 海岸地方을 관할하는 節度使와 유기적인 연대를 가지고 있었다면 무엇을 통한 유대관계였을까? 그것은 틀림없이 이 지방에 널리 定住하였던 在唐 新羅人들의 주업이었던 交易(무역과 교통업)이었을 것이다. 圓仁 일기를 보면 이 지방에 널리 분포된 在唐 新羅人들의 주업이 교역과 이에 부수되는 造船 및 船舶 修理業 각종 交易관련 서비스 提供業, 그리고 교역대상 화물인 숲이나 소금 등의 製造業 등이었다. 그리고 在唐 新羅人들의 분포된 위치를 당시의 交通路와 연결시켜보면 교통의 요충지 곳곳마다 新羅人 集團 居住地가 형성되어 있었다.

강력한 군사력을 통한 藩鎮의 할거 속에서 節度使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는 强兵을 유지하는 것이었을 것이고, 强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경제력이 있어야 했다. 그리고 이 경제적 뒷받침의 큰 원천의 하나가 바로 商業을 통한 稅收入이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지역을 관할하는 節度使는 그 지역의 교역을 주도하는 新羅人 집단을 중시하고 그들의 교역을 도우면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였을 것이며, 당연히 新羅人 사회를 총괄하던 張保臯와도 업무상 깊은 연계관계를 가졌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張保臯의 在唐활동을 樊川文集의 기록만 보고 軍中小將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軍中小將으로 활동하면서(혹은 군 제대 후) 그는 在唐 新羅人 사회의 확고부동한 지도자가 되었고, 이런 在唐 新羅人 세력을 기반으로 節度使들과 긴밀한 연계관계를 형성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런 在唐 基盤을 바탕으로 張保臯는 歸國 길에 오를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44) 張保臯와 관련이 깊었던 節度使는 山東地方을 管轄하는 平盧節度使와 徐州를 管轄하고 張保臯가 所屬하였던 武寧軍 두 節度使였을 것이다.

(4) 歸國過程

張保臯의 歸國이 해외에 유학갔던 사람이 운임을 주고 상선을 타고 오는 식의 귀국은 아닐 것이다. 그 보다는 在唐 新羅人 사회의 指導者로서 해상교역을 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귀국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張保臯가 단순하게 歸國 하였다면 골품제 귀족 사회의 생리로 보아 張保臯가 과연 왕을 알현할 수 있었겠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張保臯가 武寧軍의 軍中小將을 지냈다고 하지만 과연 당나라 地方節度使 밑의 軍中小將을 지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왕을 알현하고 淸海에 鎮을 설치하겠다고 하면, 王이 그 청을 들어 軍士萬人을 내주고 鎮의 設置를 許可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보다는 여러 가지 객관적인 여건이 王을 알현할 만큼 성숙되어 있었고, 그에게 淸海鎮을 設鎮을 허용할 만한 객관적인 조건을 구비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假定을 전제로 할 때 그 바탕이 되는 것은 在唐 新羅人의 黃海해상무역이다. 정확한 사료의 기록은 없지만 제반여건을 감안할 때 在唐 新羅人 사회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張保臯 시대에는 羅·唐·日 三國에서 공히 무시할 수 없는 勢力으로 성장하였다.⁴⁵⁾ 전술한바와 같이 張保臯는 在唐기간 중 在唐 新羅人 사회의 交역활동에 어떤 형태론가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런 과정에서 黃海해상무역에 직접 나섰을 가능성도 높다. 그리고 黃海해상무역의 수행과정에서 張保臯가 스스로 交역차 일본이나 新羅를 왕래하면서 무역을 수행하고, 그 기반을 다졌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 그랬을 것으로 推定할 수 있는 근거사료도 있다. 圓仁 일기 會昌 5년(845년) 9월 22일자에 의하면 ‘新羅 還俗僧 李信惠는 弘仁 말년(823년)에 일본의 大宰府에 도착하여 8년을 살았다. 須井宮이 筑前國 太守로 있을 때, 李信惠 등의 무리를 가엽게 여겼다. 張大使가 天長 원년(824년)에 일본에 갔다가 돌아오는 배편에 李信惠도 같이 탔으나 당나라로 왔다.’는 기사가 있다. 여기서 지칭한 張大使가 누구인지 기사만으로는 불분명하다. 張詠 大使인지 張保臯 大使인지, 그렇지 않으면 第三의 張大使인지 알 수 없다. 위 기사 중 지금 논의 내용과 문제가 되는 것은 만약 張大使가 張保臯 大使라면 淸海鎮 設鎮 以前(淸海鎮 設鎮 828년), 張大使가 일본을 다녀온 것은 824년 이었다. 이는 張保臯 대사가 交易차 일본에 갔었다는 것을 입증한다. 交易次 일본으로 갔던 것이 확실한 것은 張大使가 스스로 귀국선편

45) 唐에서 新羅坊과 新羅村은 어느 정도의 自治權과 治外法權을 가지고 있었으며, 日本의 大宰府 안에서도 다른 나라 商人과는 다른 既得權의 特權을 가지고 있었다. 新羅에 서도 하나의 准獨立王國인 淸海鎮을 基地로 活動하였다.

을 가지고 있었음에서 알 수 있다.

여기서 지칭하는 張大使가 張詠보다는 張保臯일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있다. 張詠이 勾當新羅所 押衙 겸 大使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圓仁이 赤山에 도착하였던 838년이었으며, 圓仁이 구법여행을 하고 돌아오던 847년에도 張詠은 같은 직함을 가지고 있었다. 만약 824년에 張詠이 大使였다면 張詠은 大使라는 한 職責에 적어도 824년부터 847년까지 무려 23년이나 在職하였다는 결론이 된다.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와 같은 가능성이 그리 높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비하여 張保臯일 가능성을 보면, 張保臯는 819년 李正己의 孫子 李師道가 반란을 일으켰다가 사망할 때 난의 평정과 관련하여 어떤 형태로든지 활동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후 武寧軍節度使가 된 王智興 밑에 있다가 822-3년에 武寧軍을 떠났을 가능성과 그후 在唐新羅人의 상업망을 이용하여 상업활동에 종사하였을 가능성, 그리고 828년에 淸海鎮을 설치하게 되는 등 일련의 과정에서 渡日했을 가능성이 높다.

圓仁일기의 기록을 해석하는데 있어 하나 유의할 점이 있다. ‘大使天長元年到日本國，廻時付船却歸唐國’⁴⁶⁾이라는 기사중 ‘却歸唐國’에서 ‘却’자를 왜 사용했느냐 하는 점이다. 漢文文章에서 ‘却’자는 ‘그러나’ 혹은 ‘당초의 의도와는 반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자이며, 中國人 學者들의 견해에 의하면 唐나라 시대에도 ‘却’자의 의미는 현재와 같았다고 한다. 그러므로 文章後半部를 충실히 직역하면 ‘돌아가는 배에 올랐으나 당나라로 왔다’가 된다. 그러므로 張大使의 돌아오는 배편의 당초 목적지가 唐나라가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唐나라가 아니라면 新羅이외의 곳은 생각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기사의 張大使를 張保臯로 본다면 張保臯는 天長 원년인 824년에 이미 교역을 위하여 新羅에서 日本으로 갔었고, 日本에서 다시 新羅로 돌아오려 하였으나 어떤 사정인가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唐나라로 직접가게 되어 李信惠는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당나라로 갔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 외에도 圓仁이 張保臯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스스로 밝힌 筑前國 太守가 張保臯에게 보내는 편지 한 통을 가지고 오다가 해난으로 잃어버린 사실이 있다.⁴⁷⁾ 筑前國 太守라면 張保臯의 交易船이 利用하였던 西日本을 관할하는 관직이므로 張保臯와 업무상 연계가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으나 新羅의 淸海鎮에 있는 張大使에게 보내는 편지를 중국으로 여행하는 圓仁에게 써 보냈다는 점과 여행객에 대한 旅行便宜(그것도 新羅 안에서가 아니라 中國에서)제공을 부탁하는 내용이라면 절친한 사이가 아니면 어려운 부탁이다. 이 筑前國 太守

46) 『圓仁日記』會昌4年 844年 9月 22日條

47) 『圓仁日記』開成5年(840年) 2月17日條

는 張保臯가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在唐新羅人들의 사회조직과 羅·唐간의 연락관계가 어느 정도 빈번한 것인지 등을 소상하게 알고 있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筑前國 太守와 張保臯 사이에는 圓仁의 旅行便宜 제공을 부탁할 만큼 친숙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두 사람이 가까웠다면 정부 관리인 筑前國 太守가 新羅로 찾아갔을 가능성보다는 張保臯가 교역차 여러 차례 日本을 방문하는 기회에 만나서 친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해보면 張保臯는 淸海鎮을 설치하기 훨씬 이전부터 黃海를 직접 航海하면서 交易에 종사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런 과정을 통해서 新羅內에 貿易據點을 만들었고, 이 거점을 바탕으로 상당한 세력을 형성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 黃海海上貿易이 안정되어가자 新羅內에 만들어 놓은 무역거점에 머물면서 羅·唐·日 三國간의 해상교역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張保臯의 淸海鎮을 設鎮과 관련된 史的인 상황이다.

(5) 淸海鎮 設鎮 許可

淸海鎮의 설치허가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張保臯는 唐·日本과 交易해 온 물품들을 당연히 당시 支配階級이 集團居住하고 있던 新羅의 수도인 慶州에 공급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당시의 政治 經濟制度의 특징상 가장 큰 需要者는 왕실과 귀족들이었을 것이다.

왕실에서는 진귀한 외국의 사치품을 가지고 오는 張保臯나 그 麾下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친숙하게 되고 이런 관계가 발전하여 張保臯가 王을 알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淸海鎮의 설치허가와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는 것은 唐과의 관계가 상당히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唐과 新羅는 군사동맹을 체결하여 반도를 통일하고, 그후의 관계도 다른 주변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 정복한 영토의 관할권을 놓고 양국이 한때 긴장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양국은 평화적으로 점령지를 분할하여 大同江 이남의 영토를 新羅에게 주고 당은 그 나머지로 만족하였다. 그것은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한 후에도 유민들이 쉽게 당에 복속하지 않고 독립운동을 끈질기게 전개하는 등 계속해서 불안하게 함으로 영토 분쟁보다는 이것을 다스리는 것이 보다 급선무가 되자 新羅가 원하는 영토를 떼어주고, 그 대신 남쪽에서 당에 대한

위협세력을 新羅가 견제해 주기를 바랬던 것이다.

고구려의 고토에 새로운 발해가 일어난 것은(699년) 당의 안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당은 자연스럽게 新羅가 발해를 남쪽에서 견제해줄 것을 바라게 되고 당과 발해와 新羅의 공동 해역이라고 할 수 있는 黃海의 해양지배력의 향방에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 점에 대하여 일본의 濱田 教授는 唐은 黃海의 해상안전문제를 新羅에게 맡긴 것이라고 보며, 그 증거로서 新羅왕에게 寧海軍事라는 軍號를 내린 것을 들고 있다.⁴⁸⁾

淸海鎮의 설치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당의 세력은 唐 황제산하의 기구이기는 하지만 지금의 山東半島 지방을 장악하고 있던 平盧淄靑節度使의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平盧淄靑節度使는 당 후기의 蕃鎮 발호기에는 고구려 유민이었던 李正己 장군이 節度使로 있어, 15개주를 장악하는 중국 최대의 藩鎮으로 中央政府로부터 사실상 독립하여 독립국가로 행세하였다. 이 平盧淄靑節度使는 海運押新羅渤海兩藩使라는 직책을 겸하고 있다. 이 직책은 黃海연안에 접해있는 발해와 新羅와의 공식외교사절의 왕래와 사무역, 그리고 사람의 내왕 교민 사무 등을 맡아본다. 특히 平盧淄靑節度使의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이 직책이 상당히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李正己와 그 후손들에 의하여 80여년간 지속된 平盧淄靑節度使의 반독립 상태는 819년에 李師道가 살해되면서 끝나고, 광대하였던 관할구역도 몇 개로 나뉘는 후, 平盧節度使는 4개주만 관할하게 되고, 새로운 節度使로 薛戎이 취임하였다. 薛戎도 계속해서 海運押新羅渤海兩藩使라는 직함을 보유하고는, 그도 이 직책을 통한 黃海해상무역의 전속관할권과 통제로 藩鎮 유지에 필요한 재정의 상당한 부분을 조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海運押新羅渤海兩藩使로서는 黃海해상무역을 원활하게 수행해서 교역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를 통한 세수가 증대되어 재정이 튼튼해지므로 黃海해상무역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나, 당, 일 삼국 항로의 주요거점에 무역기지를 둘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당으로서는 登州와 赤山 일대, 그리고 楚州, 漣水縣 등에 분포된 新羅人 사회가 黃海해상무역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세를 이미 갖추었고, 일본도 大宰府의 鴻臚館과 大宰府에 定住한 新羅人들을 통하여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당시까지만 해도 新羅에는 공무역인 외교사절을 통한 무역거래기구는 어느 정도 정비되어 있었으나, 사무역을 수행할 체제는 그때까지 정비가 안된 상태였다. 黃海해상무역에 대한 이권을 장악하고 있는 平盧

48) 濱田耕策, 「新羅王權と 海上勢力」, 『東アジア史における國家と 地域』, 1999, pp.456,457

淄青節度使로서는 이것을 시급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필요성 때문에 平盧淄青節度使가 唐에서 활동 중이었던 張保臯가 新羅로 진출하여 淸海鎮을 중심으로 무역 기지를 확보하는데 어떤 형태론가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이를 뒷받침할만한 논거로서 平盧淄青節度使가 新羅양민들이 납치되어 노예로 팔리고 있는 사실을 皇帝에게 보고하고 이를 勅令으로 禁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皇帝가 이를 수락하여 奴隸去來 禁止令을 내린 것과 張保臯가 興德王을 알현하여 新羅人이 노예로 팔려 가고 있다는 사실과 이를 막기 위하여 淸海에 鎮을 설치할 것을 奏請하여 興德王의 승낙을 받아내는 것이 일맥상통하고 있다. 그러므로 唐 皇帝의 新羅奴婢 거래금지 勅令과 新羅 興德王의 淸海鎮 설치허가는 그 중간에 선 平盧節度使가 어떤 형태론가 영향력을 행사하였을 것이며, 이를 현실로 옮긴 사람이 張保臯라고 할 것이다.

唐에서 新羅 양민을 奴隸로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816년, 당 조정에 宿衛로 가있던 新羅왕자 김장겸은 憲宗에게 진청하여, 唐에서 新羅人을 生口로 使役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다시 821년 3월에는, 平盧節度使였던 薛戎은 新羅의 양민이 해적에게 약탈되어, 관하의 山東半島 일대에서 奴婢로 매매되는 것을 불쌍히 여겨, 穆宗에게 요청하여 禁止의 詔勅을 받아내었다. 이 平盧節度使는 押新羅渤海兩藩使를 겸하고 있어, 在唐新羅人의 동향도 당연히 그 임무에 속하였다. 뒤이어 823년에는 新羅의 使者 金柱弼이 전 穆宗의 恩勅으로 노비가 되는 것을 면한 新羅양민이,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역시 穆宗에게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828년에 新羅에 淸海鎮이 설치되고, 여기를 근거로 張保臯가 黃海海上貿易을 전담하게 되면서 新羅人 奴婢賣買문제는 자취를 감추게 된다.

특히 張保臯의 해상무역이 주로 平盧節度使 산하의 山東半島 일대의 新羅人들과 밀접하게 연관되며, 張保臯 스스로가 在唐활동기간 중 赤山 등 平盧節度使 산하에서 在唐新羅人들을 이끌고 무역활동에 종사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등으로 張保臯는 平盧節度使와 업무상 매우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그 때문에 淸海鎮 설치에는 당의 平盧淄青節度使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平盧節度使는 淸海鎮의 설치뿐만이 아니라 설치후의 운영과정에서도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 구체적인 사례의 하나가 新羅에서 張保臯가 왕위쟁탈전에 참여하여 金佑徵이 왕위에 올랐을 때, 이례적으로 빨리 新王 등극을 祝賀하는 황제의 사절을 보내고 있다. 즉 圓仁 日記에 의하면 “당나라의 天子가 새로 즉위한 왕(神武王)을 위문하기 위하여 新羅에 사신으로 보냈던 靑州兵馬使 吳子陳과 崔副使, 그리고 王判官 등 30여명이 절로

올라와 함께 만나 보았다.”⁴⁹⁾ 神武王이 閔哀王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것이 그해 2-3월경 이므로 王의 卽位時點과의 사이가 3-4개월에 불과하다. 당시의 情報傳達 체계를 미루어 볼 때 정상이라면 그때까지는 당 皇帝는 아마도 新羅의 왕위가 바뀐 사실도 몰랐을 시간인데 벌써 축하사절이 갔다 왔다면 이것은 정상 이상의 무엇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일기 원문을 그대로 읽어보면 갔다 오는 길인지 가는 길인지가 명백하지 않다, 그러나 그 전날 張保臯 대사의 交關船 두 척이 赤山浦(원문에는 巨山浦라고 되어 있으나 赤山浦가 맞는 것으로 보인다.)에 도착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그들은 이 두 交關船을 타고 新羅로부터 돌아 온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吳子陳 등이 新羅로 파견된 것은 적어도 이 보다 몇 달 전일 것이므로 왕위쟁탈전의 성공후 곧 황제의 축하사절이 派遣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왜 이 경우만 이례적으로 이렇게 빨리 축하사절이 파견되었을까? 그 이유는 新羅外交의 일선창구 담당관인 平盧節度使는 黃海해상무역과 깊은 관련이 있고, 張保臯의 新羅에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는 것은 平盧節度使의 업무와도 깊은 관련이 있었다고 생각되어진다. 平盧節度使로서는 張保臯가 관여한 왕위쟁탈전의 성공을 빨리 기정 사실화 하여 張保臯의 지위를 확고히 해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서둘러 축하사절을 보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 한가지 新羅王의 즉위를 축하하기 위해 파견하는 사절단의 책임자가 靑州兵馬使 吳子陳이라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吳子陳은 平盧節度使의 바로 밑의 부하이다. 일반적으로 외교사절은 중앙에서 관리를 선발하여 파견하는데 이 경우만은 절도사회하의 무관인 병마사를 선정하였다는 것이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하게 한다.

이와 같은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張保臯의 淸海鎮은 新羅내에서 독특한 성격을 가진 鎮의 하나라고 해야 할 것이다.

(6) 淸海鎮의 地政學的 位置

지금의 莞島라고 사료에 명백하게 기재된 淸海鎮의 위치에 관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다. 莞島가 黃海 海上貿易의 요지에 있는 것은 틀림없다. 실제 張保臯 出現 以前의 羅·唐간의 왕래도 주로 한강하구 및 南陽灣 부근의 唐城鎮(唐恩郡을 829년에 개편)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남부서해안을 이용할 경우에도 지금의 羅州 인근의 포구를 이용하였다. 그렇다

49) 『圓仁日記』 開成 4年(839年) 6月 28日條

면 張保臯는 왜 이와 같은 기존의 對外交易港들을 피하고 완도에 淸海鎮을 설치하였다는 사실은 많은 의문점을 남겨준다.

그간 소수의 연구자나 鄉土史學者들 사이에서 논의된 것은 莞島가 張保臯와 鄭年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들이 錦衣還鄉하여 莞島를 선택하였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張保臯와 鄭年이 이곳이 고향이기 때문에 이곳 해역에 대하여 소상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자리 잡았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고찰해 보면 첫째 莞島의 地政學的인 位置를 羅·唐간의 지도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羅·唐·日 三國의 지도를 놓고 보아야 할 것이다. 張保臯 무역은 新羅와 唐간의 무역도 중요하였지만 그보다 더 역점을 두었던 부분이 羅·唐·日과의 三國 貿易에 보다 역점을 두었기 때문일 것이다. 당시의 日本側 史料를 보면 張保臯에 대한 기사가 三國史記나 三國遺事보다 더 많이 보이고, 張保臯 외에도 新羅상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이 매우 풍부하다. 이런 점으로 볼 때 在唐 新羅人들이나 淸海鎮의 新羅 해상들이 역점을 두었던 貿易市場은 唐과 新羅보다는 羅·唐·日의 貿易에 역점을 두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둘째 張保臯의 淸海鎮 設鎮後 羅·唐간의 貿易보다는 羅·唐·日의 무역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다음과 같이 推定할 수 있다. 張保臯 以前의 貿易은 朝貢貿易이라는 형태의 公貿易이었다.

특히 新羅와 唐의 관계는 군사동맹을 맺어 한반도를 통일하는 과정과 통일후의 관계 등에서 매우 밀접한 관계를 형성해왔기 때문에 사절의 왕래가 빈번하였다. 따라서 공무역과 병행하여 사무역도 성행하게 되었다. 그에 비하면 일본 遣唐使의 왕래는 아주 드물었고, 특히 張保臯 시대가 되면 公貿易의 朝貢使節의 왕래가 거의 중단된 상태였다. 또한 당시 日本人들의 造船術과 航海術은 매우 미숙하였으므로 안전하게 일본에서 중국으로 건너갈 수 없었다. 圓仁이 함께 하였던 日本 最後의 遣唐使도 출발하기까지 많은 고난을 겪었고, 出航하다가 몇 번식 되돌아 왔는가 하면, 航海를 완수하기까지 목숨을 건 생생한 기록이 圓仁의 日記에 남아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있었던 일본으로서는 唐의 文物을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新羅의 海上商人들을 이용하는 편이 훨씬 빠르고, 저렴하고 안전하였을 것이다.

新羅의 商人들은 唐·日간을 자유스럽게 왕래하는데 비해 日本은 造船技術이나 航海術이 미숙한 점 외에도 그들이 이용한 航路의 차이가 크게 문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日本

은 新羅와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韓半島 沿岸을 이용하는 航路를 사용하는데 많은 政治的인 제약이 따랐다. 그래서 東中國海를 직접 가로지르는 항로를 택하였을 것이며, 그에 따른 위험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최후의 遣唐使인 承和年간의 遣唐使도 東中國海를 직접 橫斷하는 航路를 택하였다.

반면에 新羅 상인들은 일본의 遣唐使와 다른 안전한 沿岸航路를 이용하였다. 중국에서 黃海를 橫斷할 때는 山東半島 끝에서 우리 나라의 黃海道 甕津半島나 江華島로 건너오면 짧은 시간 안에 黃海를 橫斷할 수 있다. 다음에는 韓半島 西海岸을 따라 계속 南下하여 南海岸으로 접어들어 南海岸의 多島海 사이를 뚫고 釜山 앞 바다로 나온다. 여기서 對馬島를 거쳐 九州로 건너가는 航路를 택하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거리로만 볼 때에는 西海岸의 끝에서 濟州島로 건너가서 濟州島에서 九州로 건너가는 航路도 있을 수 있으나, 이 航路는 南海岸 航路보다 위험도가 높았을 것이다.

이 南海岸 航路를 생각하면 莞島는 적절한 위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張保臯가 莞島에 淸海鎭을 設鎭한 또 하나의 이유는 新羅의 既存 土着勢力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張保臯가 淸海鎭을 설치한 경위를 살펴보면 新羅의 既存 土着勢力들과 마찰이 예상되고 있었다. 張保臯는 구태여 이들과 政治的으로 對立하면서 鎭을 설치하기보다는 土着勢力들이 아직 定着하지 않은 지역을 택하여 鎭을 設置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으므로 그렇게 하였을 수도 있을 것이다. 淸海鎭은 張保臯가 淸海鎭을 設鎭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無人島 내지는 준 무인도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張保臯 사후 10년 후에 淸海鎭을 革罷하고 여기에 정착한 주민들을 지금의 전라북도 碧骨郡으로 이주시켜 버린 데서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셋째로는 新羅와의 交易에서도 莞島에 鎭을 설치한 것은 新羅 수도인 慶州와 왕래함에 있어서 海路를 이용하기가 보다 편리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종래의 公貿易 使節들의 왕래가 지금의 江華島 일대, 또는 南陽灣에서 黃海를 건너 중국의 山東半島와 통하고, 여기서 慶州까지는 육로를 이용하거나, 全南 羅州지역의 어느 곳에서 黃海를 橫斷하고 慶州와 이곳까지는 陸路를 이용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바, 이 陸路는 지금과는 달리 그리 쉬운 길은 아니었을 것이다. 新羅의 내륙지역에 특별한 세력기반을 갖지 아니한 張保臯로서 이와같이 어려운 貿易路를 이용하기보다는 張保臯의 勢力이 지배하였던 해상으로 慶州와 왕래하는 것이 보다 편리하였을 것이다.

三國史記에도 淸海鎭과 慶州가 海路로 연결되어 있었음을 시사하는 기사가 나온다. 왕위

쟁탈전에서 패하여 달아난 “金佑徵이 배를 타고 淸海鎮으로 왔다”⁵⁰⁾고 기록하고 있다. 金佑徵이 배를 타고 淸海鎮으로 왔다면 그는 필시 慶州에서 도망하여 해변가에 정박중인 선박을 이용하여 海路로 淸海鎮을 찾아왔을 것이다.

(7) 淸海鎮의 性格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淸海鎮은 新羅內에 있는 軍士制度나 行政機構와는 다른 성격을 가진 독특한 組織의 하나라고 해야 할 것이다. 淸海鎮의 위상은 新羅的인 蕃鎮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⁵¹⁾

淸海鎮은 전술한바 있는 설치허가 과정에서 보듯이 新羅에 있는 機構이면서 唐과의 정치, 경제, 군사적인 특수한 연계관계를 가진 독특한 組織的 특성을 가진 기구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 淸海鎮의 경제적인 기반은 토지에 기반을 둔 新羅의 貴族이나 土豪勢力과는 달리 黃海의 해상무역에 그 기반을 두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淸海鎮은 黃海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羅·唐·日 三國간의 무역을 수행하는 船團의 構成과 運營을 실질적으로 책임졌던 기구로 보인다. 즉 張保臯는 羅·唐·日 三國의 航路를 연결하는 요충지인 莞島에 자리 잡고 羅·唐·日 三國을 오가는 그의 船團을 조직화하여, 이를 운항시키고, 당과 일본에 있는 在唐 및 재일 新羅人들의 商業組織과 유기적인 연계를 유지하면서 대규모 貿易을 수행하여 經濟王國을 건설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淸海鎮은 新羅 영토내에 있었지만 단순한 新羅國內의 機構라기 보다는 당시 동아시아 國際情勢下에서 탄생한 독자적인 組織機構인 동시에 독특한 성격을 가진 실체였다고 할 것이다.

淸海鎮의 이런 독특한 조직특성 때문에 新羅왕권은 이 淸海鎮의 존재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고 견제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新羅는 淸海鎮을 설치한 다음 해인 829년(興德王 4년)에 淸海鎮의 북부인 경기도 牙山灣에 돌출한 南陽半島의 唐恩郡을 개편하여 唐城鎮을 설치하였다. 唐城鎮의 浦는 新羅人이 당으로 도항하는 출항지였는바, 여기에다 군사적으로 중요성을 부여한 鎮 체제를 갖추게 한 것이다. 이 鎮에는 중앙으로부터 官位 8위의 沙飡으로 있는 金極正을 파견하여 수비하도록 하였는바, 이 진은 新羅의 관제와 兵制에 의하여 설치된 鎮의 하나다.

50) 『三國史記』新羅本紀 卷10 僖康王 2年(837年) 5月條 .

51) 蒲生京子, 「新羅末期の 張保臯の 擡頭と 反亂.」

그러나 이 두 개의 鎭은 新羅의 王權과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 張保臯가 통제하는 海域이 양분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양자간의 모순과 대립이 있을 수 있다고 보인다. 淸海鎭이 관할하는 西日本과 연하는 해역은 唐城鎭에서 관여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많다. 그러나 唐城鎭 바로 앞에 있는 黃海는 唐으로 통하는 항로다. 그러므로 淸海鎭에서 출발한 船舶이 이곳을 통하지 않고 唐으로 간다는 것은 어렵다. 張保臯의 在唐 세력을 감안할 때 이 곳을 張保臯가 무시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淸海鎭과 唐城鎭 간에는 표면화가 되었든 안되었든 黃海의 관할권을 놓고 암투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淸海鎭은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新羅왕권과 대립할 수 있는 요인을 가지고 있었다. 실제 張保臯는 航行하는 唐船이나 新羅船의 무역활동을 보증하는 대가로 財貨를 얻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그보다는 그 스스로가 麾下의 사람들을 시켜 山東半島와 江淮지구의 新羅坊, 新羅村의 상인들과 西日本의 大宰府를 연결하는 무역활동을 직접 수행하고 있었던 사실이 圓仁의 日記에서 확인된다.

이 무역활동이 新羅王權으로부터 거의 獨立한 해상 '藩鎭'의 경제적 基盤이었다. 이러한 淸海鎭의 독특한 성격은 그후의 張保臯의 왕위쟁탈전에의 참여 및 딸의 納妃문제 등으로 표출되는 新羅의 기존세력과의 갈등 과정에서도 잘 나타난다.

淸海鎭의 이와 같은 독특한 성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淸海鎭은 기존의 新羅 관제나 군제와는 다른 독특한 조직이다. 이런 淸海鎭의 조직적 특성은 淸海鎭이 新羅와 唐사이의 政治, 軍事的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淸海鎭 設鎭과 운영과정에 있어 唐과의 특수한 관계가 많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新羅內에 있는 다른 鎭의 設鎭 목적이 沿岸의 관리와 沿岸 防禦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張保臯가 設鎭한 淸海鎭은 명칭으로는 같은 鎭이지만 단순한 연안의 관리와 방어만이 목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黃海로 진출하여 黃海의 海上交通路를 배타적으로 관할하는 大洋海軍의 前進基地로서 機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근거로 張保臯가 興德王을 만나 淸海鎭의 설치를 건의할 때 黃海해상질서가 문란하여 해적이 新羅人 양민을 노예로 잡아가는 것을 이유로 들었고, 또 淸海鎭을 설치한 후에는 海賊이 근절되었다는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셋째 淸海鎭은 당시 羅·唐·日 三國을 往來하는 商船들을 직접 所有하고 管理하는 現在

海運會社の本社 겸 運航管理本部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근거로는 圓仁이 赤山法華院에 머물 때 新羅의 交關船 두 척이 巨山浦에 도착하였다는 기록이나, 日本書記의 기록에서 張保臯가 李忠 등을 보내 교역을 요청한 점, 그리고 唐에서는 이러한 交關船을 遣唐買物使라 하고 책임자격인 崔暈을 大唐賣物使라 하였던 점과 日本은 張保臯가 보내온 船團을 廻易使라고 稱한것 등이 이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한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할 때 張保臯는 羅·唐·日 三國에 定住한 黃海海上商人들의 우두머리로서 이들 세 지역의 상인들에 대한 支配權을 가지고 있었으며, 羅·唐·日 三國을 오가는 商船을 직접 소유하였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라도 黃海를 航海하는 商船에 대한 排他的 支配權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淸海鎮은 羅·唐·日 三國을 연결하는 주요 海上交通路를 관리 통제하는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VI. 맺 음 말

E.O 라이샤워 교수는 中國 東部와 新羅 그리고 日本의 貿易은 대부분 新羅人에 의해 장악 되었다고 했다. 또 日本의 日野開三郎 씨는 新羅 海上貿易의 융성은 唐나라 末期까지 200여년 계속되었으며 동지나해를 制覇 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서술의 근거는 淸海鎮을 中心으로한 張保臯의 해상활동에 근거를 둔 것이다. 이는 在唐 新羅人 商人 사회와 확대 발전된 新羅의 産業活動이 연계되어 이루어진 海上貿易의 성과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海上貿易이라 할 때 船舶. 航海術. 航路를 중심으로 충분한 交易 대상과 交易品이 완비되어 졌을 때를 의미할 것이다. 여기서 주지해야 할 사항은 張保臯가 활용했던 船舶과 航海術은 中國의 것을 활용했다고 中國의 학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張保臯의 출현 전 이미 新羅는 그들의 船舶과 그들의 航海術을 통해 日本. 中國과 交易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확인한바 있다. 또한 그 시대의 貿易構造는 상품의 販賣와 買入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교역 되어 져야할 상품은 海上貿易의 필수 조건이 될 것이다. 따라서 本稿는 신라의 三國統一후 8세기에 이르러 3배의 영토 확대와 수도 慶州를 중심으로 확대 발전해간 신라의 産業構造를 분석하려 하였다. 그것은 三十五金入宅을 가진 骨品貴族의 經濟基盤을 통해 유능한 工匠과 대규모의 家産工房을 소유하여 최고품의 상품을 생산할 수 있었던 新羅 産業構造의 발달을 확인하려 하였다. 이는 고도로 발달한 산업구조를 통해 이루어진 交易의 산물로 남아 있는 東大寺 正倉院의 소장품중 毛氈.(양털 담요)長頸壺.(항아리)鏡.(그릇받침대)匙.(숟가락)

金銅剪子(금동제가위),加盤(사발) 등은 그 시대의 産業발달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또한 그 시대의 중요한 교역품으로 서는 고급 견직물인 朝霞紬 魚牙紬 나 신라자기 등이 있다. 이러한 산업발달을 기반으로 이미 張保臯 출현전 한반도 서해연안을 거쳐 황해를 횡단하여 산동반도에 도달하여 조공과 私貿易을 전개해 나갔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新羅의 産業과 交易構造는 골품귀족의 경제기반과 연결되어 있으며 국가적 혼란이 야기되었을 때 그것은 체계적인 교역활동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신라는 惠恭王 代에 일어난 96각간의 난 이후 155년간 20왕이 교체되는 왕권 쟁탈전기에 들어갔다. 또한 唐도 安史의 亂후 新羅와 같은 시대적 구조 속에 있었다.

이러한 시기에 張保臯가 동아시아의 海上貿易을 장악할 수 있었던 背景중 가장 큰 것은 在唐 신라인 사회를 유기적인 관계로 정립시켰다는 것일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배경 중 30세의 젊은 나이로 武寧軍 小將이 되었다는 것도 큰 힘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이는 中央集權的인 통제력이 弛緩되어 갔을 때 節度使의 막강한 힘을 배경으로 한 武寧軍 小將이라는 군대의 힘은 在唐 新羅人의 생활 즉 貿易活動 등에 영향을 주었고 在唐 新羅人사회를 통괄하고 있었던 張詠, 劉愼言등을 수하로 둘 수 있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張保臯의 활동 상황을 미루어 볼 때 武寧軍 소장을 그만 두었을 때 이미 體系化 되어있었던 在唐 新羅人 상인사회를 관장하면서 교역활동을 활성화 해갔을 것이다. 本稿에서 서술하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점은 張保臯의 청해진 진출 문제였다. 이것은 지금까지 既 研究者들의 견해가 모두 각각이며 때로는 전혀 근거 없는 견해를 가지고있기 때문이다. 張保臯의 海上勢力 背景은 在唐 신라인 상인 사회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또한 시대적 배경으로서 나타난 唐의 開放政策은 楚州, 漣水縣, 廣州, 明州 등지의 交易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있었다는 점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겠다. 이러한 시기 新羅의 발달한 産業構造와 풍부한 交易品을 확보할 수 있는 淸海鎮으로의 이동은 동아시아의 海上權을 장악할 수 있는 海上貿易의 전진 기지를 확보한 것으로 이해되어진다.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는 것은 武寧軍 이라는 節度使의 軍隊組織으로부터 물러났다는 것은 張保臯의 歸國動機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본고에서 주장하려는 것은 張保臯의 歸國動機가 단순히 海賊退治를 위한 의분심 때문만은 아니며 단지 그것은 청해진을 근거지로 한 새로운 海上活動의 구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張保臯의 淸海鎮 設鎮 목적은 위의 李基東 교수의 주장처럼 張保臯가 武寧

軍을 떠났기 때문에 귀향할 수밖에 없어 청해진을 설정했다는 논거나 中國學者 王杰 교수가 주장한 것처럼 武寧軍 절도사로부터 축출 당하였기 때문에 청해진으로 돌아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장보고의 청해진 設鎮 문제를 종합하여 재정리하여 본다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 ① 新羅 統一以後 骨品貴族(진골)들의 經濟 기반 확대와 관련하여 나타난 産業構造의 발달이다. 이는 東大寺 正倉院에 소장된 신라의 고급상품들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다.
- ② 확대 발전한 新羅의 産業은 骨品貴族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交易활동의 활성화와 연결된다. 물론 8세기의 交易은 朝貢무역 형태이지만 私貿易이 일반화되고 있었다. 이는 朝貢使로 日本으로 간 왕자 金泰廉의 조공사절이 700명이 되었다는 기록을 통해서 확인된다.
- ③ 이와 같은 8-9세기 新羅 社會構造는 骨品貴族들에 의한 私貿易의 확대로 중국에서의 교역도 활성화되고 있었다. 이는 E.O Reichauer⁵²⁾의 신라인 貿易商들의 활동을 밝히는 내용중 白居易의 詩文을 모두 매점 하여간 商人이 新羅人이라는 것과 당시의 저명 화가의 작품 10여점을 고가로 매입해간 신라상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다.
- ④ 9세기 新羅. 唐의 政治的 混亂과 中央集權的 인 통제의 弛緩 은 私貿易의 확대를 가져왔으며 이시기 이미 張保臯는 在唐 新羅人의 租界를 관장하면서 貿易活動에 종사하여 富를 획득하고 있었다. 같은 시기 이미 新羅의 産業構造 發達과 함께 高級化된 상품이 唐으로 유입되고 있었으며 張保臯도 그들 商品을 交易의 대상으로 하였을 것이다.
- ⑤ 張保臯는 이미 在唐 신라인의 貿易商人들을 통괄하고 있는 입장에서 新羅 本國의 풍부한 交易品과 新羅商人들을 자신의 통제아래 두어 羅. 唐. 日의 三國貿易을 모두 장악하려는 포부가 작용했을 것이다.
- ⑥ 三國史記 憲德王 3 年條의 기록중 해적의 횡행과 해적퇴치를 건의하면서 萬人의 兵卒을 받아 청해진을 설치했다는 내용은 張保臯가 의도했던 청해진 設鎮의 과정으로 생각되어진다. 이렇게 볼 때 중국에서 蕃鎮의 경험을 가진 장보고는 淸海鎮 자체가 治

52) E.O Reischauer, 『Ennin's Diary』
 Arther Waley, 『The life and times of Po Cho-i』
 Alexander. C. Scope 『Tang Chao Ming Hua, cu』

外法權의 특수영역임을 활용하여 그의 막대한 재산과 군사적 경험을 통해 해상왕국을 건설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日本에 廻易使, 중국에 遣唐賣物使를 파견하면서 9세기 동아시아의 해상무역 왕으로 그 자리를 굳혀 갔을 것이라 이해되어진다.

